



즉시 배포용: 2023년 4월 7일

KATHY HOCHUL 주지사

전국적으로 낙태 접근을 제한하려는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한 KATHY HOCHUL  
주지사의 성명

"미국 식품의약국(FDA)이 20여 년 전 승인한 이후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해 온 안전하고 효과적인 낙태약 형태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공포감이 듭니다. 이 전례 없는 판결은 FDA의 증거 기반 과학적 승인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, 의학을 정치화하려는 행태를 보여줍니다.

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: 오늘날의 판결과 상관없이, 낙태 접근과 관리는 여전히 뉴욕에서 가능합니다. 돌봄이 필요한 분이라면 우리 주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. 또한, 연방 정부, 주지사 및 전국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케어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저는 또한 입법부에 현재 예산 협상 중에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다른 약물 낙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.

지난해 *Roe* 판결을 뒤집는 유출된 대법원 판결 이후, 우리는 주 전역에 걸쳐 낙태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주도로 3,500만 달러를 투자하고, 낙태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 패키지에 서명하는 등 병원 내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.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한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에서 Medicaid 환급 비율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2,500만 달러를 지원하고, 약사들이 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,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시행하고, SUNY와 CUNY 캠퍼스에서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

오늘 판결은 극단주의자들이 단지 낙태할 권리를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대신, 그들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의지에 반하여, 전국적으로 생식 의료 서비스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뉴욕이 낙태 권리가 보호되는 안전한 항구가 될 수 있도록, 그리고 낙태가 안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싸울 것입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